

Contents

◇ 극지정책이슈포커스

◇ 해외이슈포커스

극지정책이슈포커스

내년 정부 R&D 예산, 금년 대비 2.3% 감소한 12조 6천억원대

- 정부는 7.10(금) 황교안 국무총리 및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'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'를 개최하고, 내년 연구개발(R&D) 예산을 심의·확정
- 전체 규모는 금년보다 2.3% 감소한 12조 6,380억원으로 지난 5월 국가재정전력회의에서 확정된 '정부연구개발(R&D) 혁신방안'의 이행이 예산(안) 조정의 핵심

오피니언

-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, 경제의 역동성 견인을 연구개발 투자의 중점 방향으로 설정, 이를 중장기적 극지연구 방향성 설정에 반영 및 극지분야 융합/협력 연구 확대 노력 필요

본문

• 중점투자분야 1: 경제혁신 선도

- 주력산업 체질 혁신: 중소기업 기술혁신, 제조업 혁신, 지역R&D 혁신(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)
- 미래성장동력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역동성 견인: 에너지 신산업 창출, 디지털 문화/서비스 산업 육성, 바이오 신산업, 농수산업경쟁력 제고
-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다각적 사업화 촉진: 수요자중심 지원, 기술사업화 통합/연계, 사업화 지원 강화 등

• 중점투자분야 2: 국민행복 실현

- 국민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: 식품안전 확보, 스마트 건강관리, 생활환경 개선
-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: 식량안보 확보, 기후변화 대응, 고령화 대비, 수자원 확보 및 관리
-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: 정보보호 강화, 재난재해 대응, 사회안전성 제고

• 중점투자분야 3: 과학기술기반 혁신

- 창의적 기초연구 및 목적형 융합연구 확대: 기초연구 내실화, 융합연구 확대
- 글로벌 수준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: 창의/융합형 인재 육성, 대형 과기 인프라 구축, 우주개발 사업 확대
-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: 민군 협력강화, 부처 간 협업 강화, 전략적 국제협력, 출연(연)-기업 연계 지원

Contents

◇ 극지정책이슈포커스

◇ 해외이슈포커스

해외이슈포커스

2015 UNESCO 파리 기후회의 개최

- 2015년 7월 6일~10일 파리에서 IPCC, ICSU, WMO, UNESCO, 세계은행 등이 공동주최하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책 및 과학연구 융합회의가 개최됨
- * IPCC :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
- * ICSU :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
- * WMO :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

오피니언

- 금년 말 파리 기후정상회의에서 포스트-2020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, 과학자들의 역학 증대 및 다양한 소통방식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 증대

본문

- 이번 회의에서는 WMO 사무총장인 Michel Jarraud이 기조연설을 하였고, IASC, UNEP 등의 전문가가 다수 초대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에 대하여 논의함.
- Michel Jarraud은 특히 기후변화 이슈가 올해부터 적용될 지속가능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에 접목되어야 하며, 파리 기후정상회의에 앞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됨을 강조함.



- 기후변화 과학, 예측 및 전망, 대응전략, 정책 등 총 4개 세션에서 정부-학계-산업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였고, 과학과 정책결정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IPCC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었으며, IPCC 보고서 작업에 대한 과학자들의 기여를 촉구하였음.
- 특이사항으로 유럽-캐나다 북극 회의가 개최되어 양자간 협력체계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.